

석유시대의 쇠퇴인가, 불안한 21세기 맞이



심 의 섭

〈 명지대학교 교수, 한국자원경제학회 부회장 〉

세 계 석유시장의 판도는 지난 여름 BP와 Amoco가 합병하여 석유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였으며,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했던 Exxon과 Mobil의 합병이 국제 석유시장에 미칠 파장이 또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과거 70년대 80년대에는 OPEC의 행동이 보도의 초점이었지만 이제는 국제 석유시장의 뉴스진원은 메이저의 움직임으로 되돌아 간 듯하다. 그래서 장래의 국제 석유시장에서도 정치 논리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원리에 따르는 경향이 짙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지난 1980년대에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생산조정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OPEC의 생산비율을 도입하고 석유의 실제가격을 하락시키면서 OPEC 석유수요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렸던 점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수요 하락에 따라 다른 산유국들이 판매 증가를 위하여 가격을 낮추는 것을 실현하므로써 처음에 OPEC은 여러 가지 원유에 대하여 차등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OPEC 단결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나이지리아가 OPEC과의 협의 없이 가격을 5.50달러까지 내림으로써 가격 협정 와해의 선례를 남겼다. 가격협정의 와해로 OPEC은 교과서적인 카르텔처럼 생산량을 통제할 적도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이어졌던 국제 원유가의 하락은 동절기의 원유수요에도 불구하고 약세 기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OPEC의 감산 합의와 12월의 이라크 침공에도 불구하고 기대와는 달리 유가의 안정기조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아시아 경제의 악화에 따른 석유수요의 감소라든가 이라크의 수출량 증가가 국제 유가하락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되고 있다.

현재 석유시장의 불안은 산유국과 소비국들에게 네가티브섬 게임(negative-sum game)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OPEC회원국들의 경우 원유판매수입은 지난해보다 500억 달러나 줄어들었고 중동산유국들은 과잉생산과 세계적 경제위기의 영

장래의
국제 석유시장에서도
정치 논리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원리에 따르는
경향이 짙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향으로 국가전체수입의 70~80%를 차지하는 것이 석유수입인데, 석유가격이 지난 2년 사이 절반수준까지 떨어졌다.

그 결과 쿠웨이트에서는 국민적인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예산을 삭감하였고, UAE에서는 차관요청까지 하게 되었으며 리비아는 디나르화를 18%까지 평가절하하는 통화불안까지 겪게 되었다. 또한 GCC 국가들은 지난 2년간 75만명의 불법취업 외국인을 추방하여 이들이 차지하던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채우면서 사회체제의 불안요인으로 잠재되고 있다. 세기말에 나타난 이러한 불안한 석유시장판도가 산유국의 전성시대와 더불어 석유시대가 기울어지며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또한 유가하락에서 비롯되는 석유시장의 침체와 석유수입의 감소는 산유국뿐만 아니라 소비국인 선진 공업국들의 경제에도 외화절감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산유국에 대한 수출 부진 및 투자감소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게 예상되고 있다.

97년 11월 세계경제상황을 무시하고 사우디 아라비아가 OPEC의 10% 증산결정을 주도하면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선 아래로 주저 앉은 뒤 기력을 펴지 못하고 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지난 12월 11일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에서 사상 최저 개장 가격인 9.70달러에서 출발, 한때 9.17달러까지 떨어지는 약세행진을 거듭했다. 유가는 현재와 같은 공급과잉상태가 지속될 경우 배럴당 5~7달러선까지 하락하리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년간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리라고 주장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려할만한 파동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88년과 93년에는 가격 폭락기가 있었고 90년도 하반기 잠정적으로 가격 폭등이 한차례 있었던 시기를 제외한다면 유가는 지난 73년의 가격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더구나 그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가격 하락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산업구조에서 보면 유가가 배럴당 1달러 내리면 연간 8억 7300만 달러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게 되므로 지난해에는 최소한 50억 달러의 이득을 본 셈이다. 유가 하락은 불가안정에도 도움을 주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유가가 1달러만 내려도 석유 제품가격은 2.75% 인하되어 도매물가는 0.45%포인트, 소비자 물가는 0.16포인트를 끌어 내릴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는 에너지 의존형이기 때문에 장래의 국제 유가의 변화와 공급 구조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중요하다.

21세기 벽두에서 가시적 기간의 유가를 예측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유매장량의 가채년수와 원자력을 비롯한 보다 안전성이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 그리고 국제 석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메이저들과 이들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미국 행정부의 세계적인 힘의 우위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21세기 벽두에서
유가를 예측하자면
원유매장량의 가채년수,
대체에너지 개발,
메이저들과 미국 행정부의
세계적인 힘의 우위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